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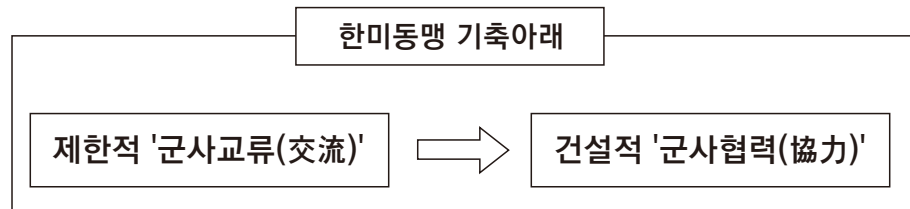
3.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맞는 안보·군사 협력 수준의 제고

비전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걸맞은 한중 군사관계 구축
- 한미동맹의 기축(基軸)을 견지하면서 지금까지 제한적인 범위 내 「교류(交流)」 위주의 관계에서 선별적으로 「협력(協力)」 차원의 건설적인 방향 지향

한미동맹의 기축(基軸)을 견지하면서 지금까지 제한적인 범위 내 「교류(交流)」 위주의 관계에서 선별적으로 「협력(協力)」 차원의 건설적인 방향 지향

[도표 3] 한중 안보군사협력 비전



추진 방향

- 원맹근교(遠盟近交)**
 - 원맹근교(遠盟近交): 미중간의 국력 격차와 미국의 군사적 우위 등을 고려 멀리 있는 미국과 동맹을 튼튼히 하는 가운데 가까이 있는 중국과 안보·군사 부문의 교류 협력도 점차적으로 확대
- 점진확산(漸進擴散)**
 - 점진확산(漸進擴散): 안보, 군사분야의 특성상 관계 발전의 속도가 더딘 점을 감안하여 점(點)에서 선(線)으로, 선에서 면(面)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해당 사안과 분야별로 접근함이 바람직
- 구동존이(求同存異)**
 - 구동존이(求同存異): 양국의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는 전제 하에 공통분모가 있는 것부터 구체화하여 추진하되, 제약요인들을 식별하여 장애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 병행추진(並行推進)**
 - 병행추진(並行推進): 한중 관계의 선발영역, 즉 경제 및 한류 등과 연계하여 안보·군사 분야의 협력을 거부감 없이 추진
- 국제공조(國際共助)**
 - 국제공조(國際共助): 한중이 공동으로 참가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통해 국제구범 속에서 협력하고, 국제차원의 공동 노력을 통해 양자 간의 안보·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지혜 발휘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홍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올림픽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CHINA WATCHING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2015. 10. 26 <제9호>

한중 안보·군사협력 추세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창형(李昌衡),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정책 제언

한미동맹과 한중군사관계의 조화로운 균형점 모색

- 한중군사관계가 발전하면 한미동맹이 훼손된다는 zero-sum 식 사고에서 탈피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군사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 이를 위해 미국에는 중국과의 안보·군사 협력 관련 양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중국측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군사활동의 범위를 논의하여 접점을 설정
- 중측에는 한미동맹의 특성을 이해시킨 가운데, 군사협력의 road-map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한 협조를 유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군사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남북중 협력시스템 구축 및 가동

- 북핵 및 북한 급변사태 등 북한 문제의 key-player가 남북·미·중임을 감안, 기존의 6자 회담 외 더 밀도 높은 논의 기구 또는 채널을 조기에 구축
- 한미중 회의에서는 북한 관련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남북중 회의에서는 남북 화해 및 북한의 국제무대 참여 통로로 활용

한미중 회의에서는 북한 관련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남북중 회의에서는 남북 화해 및 북한의 국제무대 참여 통로로 활용

한중 양자간 안보협력 기제의 다양화와 정례화 추진

- 현재의 청와대-국방부-각軍차원의 한중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여 안보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가동하도록 제도화하여 정착
- 군사훈련의 경우 상호 공개 가능한 훈련 리스트를 통보하여 참관 및 공동 훈련의 범위를 점차 확대
- 군사교육교류 인원을 추가하여 미래를 위한 '관사(關係)'를 강화하고, 이념과 체제의 상이함을 고려, 1.5 트랙의 공동연구로 이견 조정 및 비전을 창출

한중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여 안보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가동하도록 제도화

문제 제기

1. 한중관계의 불균형과 안보·군사협력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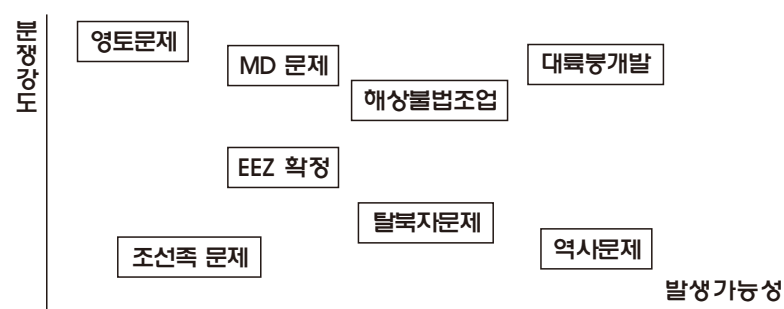
경제·문화는 비약적, 안보·군사는 초보 수준

-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우호협력관계에서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 (1998),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2003),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2008)로 발전
 - 기간 중 경제, 인적교류, 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안보·군사 분야의 관계 발전과 협력은 상대적으로 저조
 - 특히, 군사분야의 협력은 군사관계의 3단계 중 '군사 협력'의 초기단계 수준으로 평가됨.
- » 군사관계 3단계: 군사교류 → 군사협력 → 군사동맹

미래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에 한·중 협력은 매우 긴요

- 한중 양자 간의 갈등 관리 측면에서 갈등고조 방지 및 비평화적 방법으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필요

[도표 1] 한중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과 분쟁 강도



- 북한문제 관련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의 협력 절실
- » 특히, 북핵문제 해결, 북한대량살상무기 관리, 북한급변 사태 시 군사적 개입, 한반도 통일의 key-player로서의 역할이 중요
-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자연재해 등의 피해 최소화 및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서도 국제공조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 » 예를 들면, 서해상 재해재난 구조, 동남중국해의 해양수송로 보호, 핵 및 방사능 오염방지 등 비전통 안보와 전쟁 이외의 군사 활동 차원의 협력이 가능

2. 한중 안보·군사협력의 제약요인과 진화

제약요인의 극복

- 북중관계의 특수성 측면: 중국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종전의 '조중혈맹'이라는 인식에서 북한을 국제규범에 입각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 중인 것으로 평가됨

경제, 인적교류, 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안보·군사 분야의 관계 발전과 협력은 상대적으로 저조

종전의 '조중혈맹'이라는 인식에서 북한을 국제규범에 입각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 중

-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측면: 종전에는 중국이 한국을 미국의 종속변수로 평가하였으나, 점차 한국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한미동맹의 대북억제력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추세로 변화 중
- 대만요인과 '하나의 중국' 측면에서 양안간의 국력 차이와 한중관계의 발전으로 대만요인이 더 이상 한중관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
- 한반도에서 양국가의 이익이 상충된다고 인식하였으나, 박근혜-시진핑 집권 이후 '한국의 발전'과 '중국의 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지도층의 인식이 형성

한중안보·군사협력의 진화

-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는 이견이 존재했으나, 군사 교류와 기타 현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추세

[도표 2] 역대 한중국방장관 회담의 의제와 평가

시기 의제	'99 조성태	'00 遲浩田	'01 김동신	'05 윤광웅	'06 曹剛川	'07 김장수	'09 이상희	'11 김관진	'15 常萬全
안보정세평가	남북 관계	우리의 대북 정책	월드컵 초청	한반도 정세	한반도 평화 안정	양국 국방 정책	북한 2차 핵실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북핵 THAAD
한중 군사 교류	장관회담 정례화(한)
	국방전략대화체 개설(한)
	해·공군 간 Hot-line(상)	'08년 개통
	상호훈련 참관(중)
	해군탐색 구조훈련(한)
기타	한·대만 교육교류(중)
	군사교육 교류확대(한)
	PKO협력(상)
	해적퇴치 (소말리아)(상)
	한국전 전사자 유해 발굴 송환(한)
	탈북국군 포로송환(한)
서해NLL 불법조업(한)	
PSI/MD(중)	

한국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한미동맹의 대북억제력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추세